

찬송가 28장 - 복의 근원 강림하사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찬송가 540장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 2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뻐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 4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025년

신년 가정 예배



신년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인도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2025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28장 다같이

기 도 말은이

성경말씀 히브리서 11장 8-10절 (신약 364쪽) 말은이

-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씀나눔 ‘믿음의 발걸음’ 말은이

찬 송 54장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말씀나눔

믿음의 발걸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고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아갈 힘과 방향을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 8-10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는 말은, 그의 믿음이 단순한 입술의 말로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가정도 새해를 시작하며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장막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의지하기 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하려는 의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부탁하며, 내려놓는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 땅의 창조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인 것을 잊지 맙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